

건강 칼럼

아프리카돼지열병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의 2,400여두 규모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폐사 발생이 신고돼 정밀 검사를 한 결과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사례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African Swine Fever Virus(ASFV:아프리카 돼지 열 바이러스)가 원인균으로 돼지나 멧돼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중증 출혈 전염병이다.

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분변과 같은 분비물 등을 통해 다른 숙주에 전파되며, 돼지교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된다.



김 이 곤  
구암한의원장

멧돼지와 진드기 사이에 불현성의 감염(병원균 등에 감염됐으나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디프테리아, 일본 뇌염, 결핵 등에서 많다) 사이클이 형성돼 있으며, 호흡기를 통해 또는 육체품을 매개로 돼지에게 전파된다.

잠복 기간은 약 4일에서 19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잠복기 이후 고열, 청색증, 림프절과 내장의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현재까지 알려진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다행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이긴 하나 인수공통 감염병은 아니다.

해외 전문가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인간건강의 위협요소는 없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국(EFSA) 또한 "인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에 감염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는 돼지의 세포에만 부착해 증식할 수 있다.

독자제언

서민 울리는 보이싱 피싱 등 사기범죄 예방이 중요

최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활주변 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파괴하여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알고자 한다.

서민을 울리는 사기범죄는 크게 '피싱사기'와 '생활사기' 그리고 '금융사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싱사기'는 보이싱 피싱, 메신저 피싱 등이며, '생활사기'는 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사기 등이며, '금융사기'는 유사수신, 다단계, 불법 대부업, 보험사기 등으로 나뉘어진다. 그중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표적인 사기범죄는 보이싱피싱, 메신저 피싱등이 있으며, 현재 2019년 상반기 기준 2500여건이 발생하여 약 279억8000만원의 재

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들 수법으로는 국제청 등을 사칭하거나, 경찰·검찰등을 사칭하여 각종 범죄 연루계좌를 보호한다는 명분, 공공기관·금융기관 사칭, 가족(지녀)남치 기망 등으로 갈수록 사기의 유형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싱피싱 등 사기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팀 및 TF구성 등 적극적인 단속을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검거와 피해금 환수가 쉽고 빠르게 이어지는는 쉽지 않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보이싱피싱 등 사기 피해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주의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상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전화나 메신저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하고 경계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 고형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필수'

요즘 거리를 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이륜차를 운행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륜차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이 착용 시보다 약 2배로 나타나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다.

또한 배달 문화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이라보니 귀에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곡예 운전을 하는 등 이

륜차 운전자들이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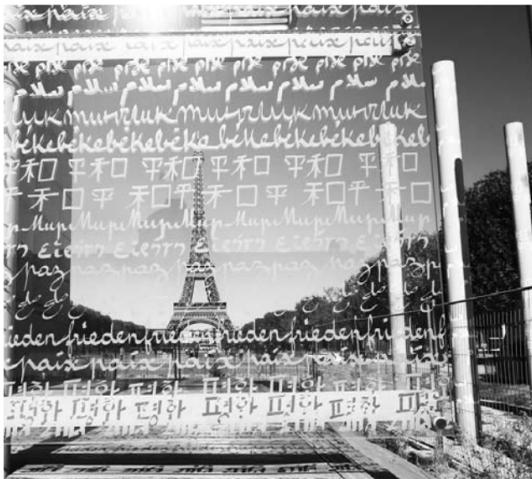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대상자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등을 실시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하다.

안전모는 내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고 노력해야만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백요섭 고형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평화' 기원하는 파리 평화의 벽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주변 평화의 벽에 32개국 언어로 '평화'란 말이 각인돼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전북 대도약은 증액된 예산확보가 답

전북 대도약은 예산 증액 확보가 답이다. 여러가지 해법이 있을 테지만 역시나 최고의 해법은 증액된 예산 확보이다. 무슨 일이든 돈이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아무리 뜻이 높고 열망이 뜨겁다 해도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에 보름 이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예전에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행보 이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기 다시 강조하거니와 예산 증액 확보는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도지사가 저번에 서울 여의도의 컨싱턴 호텔에서 전북 연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내년 확보에 공조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그에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요즘이다. 정국이 어수선한 까닭이다. 전북도가 여러차례 말한 바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나서서 이쪽의 관심을 먼저 끌어야 한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사업이며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 등 그 핵심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수준의 예산

으로 부족하다. 전북도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좀 더 힘차게 뛰어야겠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한 현인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덕거리고 있는데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실력 발휘를 해야겠다.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전북도가 도민에게 여러 차례 언급하고 또 그 성취를 자신한 것들이다. 발전 방침을 밝혔다가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일이 안 풀렸다는 식의 변명의 말을 들려주어서는 안된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힘내야 한다. 이대로라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이 언제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청사진대로라면 진척이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답답할만 안기고 있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점잖은 행보는 마땅치 않다. 발전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성공 가도를 달려야 한다. 발전 보폭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마음에 안든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전북도는 좀더 저돌적이어야겠다. 중앙의 관계자들을 설득하려면 그래야 한다.

초고령 인구 20% 넘는 문제 고민해야

전북도는 생각해 생각을 더해야 한다.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많은 것들 중 하나가 인구 고령화 현상이다. 지난 날 수차례에 걸쳐 심상치 않다고 했는데 그게 기우가 아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도내 전체 인구 182만3천9백여명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38만15천여 명으로 전체 비율 20%를 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해 많이 상승한 것이다.

전북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다.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는데 거주 인구마저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문제이다. 청년 인구 유출에 더하여 저출산이 고민이 되고 있는 중에 노인 인구의 증가는 우리 지역 사회의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65세 이상의 인구 증가는 우리 전북이 활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번에 인구 감소로 도내 읍면 동의 77%가 소멸 위기라는 진단이 있었는데 전북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저번에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 협약이

어찌됐는지 궁금한 오늘이다. "인구감을 쌓아 전북 소멸을 막자"고 했는데 말이다.

전북도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65세 이상 인구 15%를 넘어섰다고 호들갑스럽게 걱정을 댔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어선 곤란하다. 저번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행정자치연보'의 내용을 보면 전북의 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매번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뚜렷하다. 젊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16년에 18.12%이던 것이 2017년에는 18.72%로 늘었다. 그리고 2018년에 19.27%이던 것이 올해는 앞에 밝힌대로이다.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공산이 큰데 전북도는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어떻게 하면 출산 장려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이만 갈수록 늘고 있으니 딱하다. 이러한 것은 이제 18째 명태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